



한덕수 총리, 호우피해 및 대처상황 점검

- 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가치로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할 것을 지시
- 北 황강댐 방류 대비 철저 및 군남댐 홍수조절기능 적기 가동 지시
- 전기·가스·교통 관리기관의 출동역량 극대화 및 신속한 피해복구 주문

□ 한덕수 국무총리는 7월 14일(금) 08시 30분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관계기관*과 영상회의를 갖고 기관별 호우 피해 및 대처상황을 점검했다.

* 행안부, 농식품부, 환경부, 국토부, 경찰청, 소방청, 산림청, 기상청, 17개 시도

□ 한 총리는 “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,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”이라 말하고, “인명피해 제로를 최우선 가치로 하여 모든 공직자들이 장마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대응해줄 것”을 주문했다.

○ 또한, “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되어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”고 당부하고, “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필승교 수위를 상시 모니터링하면서,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군남댐 홍수조절기능을 적시에 가동할 것”을 지시했다.

○ 곳곳에서 정전, 도로유실, 가스누출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“전기·가스·철도·지하철·도로 등을 관리하는 부처와 공공기관에서는 출동역량을 극대화하고, 피해 발생 즉시 복구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”을 철저히 주문했다.

○ 아울러 일시대피 중인 주민들에 대해 “머물고 계시는 동안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필수품 등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고,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복구할 것”을 지시했다.

○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과 노약자 등 재해취약계층에 대해서도 “전담공무원과 동행파트너가 평상시에도 수시로 찾아뵙고 불편함은 없으신지 살펴주기 바란다”고 당부하고, 이러한 노력이 “실제 위험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- 이 날 회의에서 행안부는 7월 14일(금) 07시 현재 하천변 691개소, 둔치 주차장 167개소를 통제하고 있으며, 일시대피자 44세대 104명의 미귀가 상황 등을 보고했다.
 - 이와 함께, 지속되는 장맛비로 지반이 약화되면서 도로 비탈면 유실, 축대·옹벽 붕괴, 도로·교량 유실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, 추가 강수 시에는 대규모 피해로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보고하며,
 -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 강수 전후로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, 주민 대상 수시 안내 및 선제적 통제·대피, 일제점검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.
- 경찰청은 호우 대비 교통관리, 예방순찰 등에 경찰관 총 10,528명을 투입하고 있으며, 장마가 끝날때까지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근무 등을 통해 재난대응에 적극 협조할 계획임을 보고했다.
- 소방청은 7월 11일(화) 16시부터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며, 구조활동 및 급·배수 지원, 안전조치 등에 임하고 있으며,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역에는 즉시 총 동원령을 발령하여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.
- 회의를 마무리하며 한 총리는 연일 호우상황에 대응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, 회의에 참석한 기관장들에게 공직자들이 재난대응 업무에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 격려할 것을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	책임자	과 장	신강민 (044-200-2346)
	안전환경정책관실	담당자	사무관	김민수 (044-200-2348)

